**연중 제31주일(2018년 11월 4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11월 위령 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령 성월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며칠 전에 레지오 단원들과 몇 분들 모시고, 우리 성당 묘지에 함께 갔었습니다. 묘지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연도 바치고, 함께 점심 식사하고, 묘지 이곳 저곳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곳 캠든교구에서 신부로 사는 동안은, 해마다 위령의 날에 우리 성당 묘지를 신자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묘지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이미 작성해 놓고 살아갑니다. 저는 죽으면 특별히 저를 챙겨주고 뒷수습을 해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힐 것인지, 또 장례미사는 어디에서 누가 집전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 되진 않겠지만 재산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유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방을 나설때, 방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옵니다. 혹시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제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이 제 방 뒷정리를 하게 될텐데, 너무 지저분하게 어질러 놓으면 속으로 욕하겠지요. ‘이 신부 진짜 지저분하게도 살았네!’ 그런 소리 안들으려고 늘 방정리 주변 정리 잘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육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신체는 장기 기증이나 의학 연구용으로 해당 병원에 다 기증하고, 그래도 남는 시신이 있으면, 화장을 해서 우리 성당 묘지 한쪽에 매장할 것입니다.  
  
묘지를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묘지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죽음에 대한 영원히 변치않는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둘째, 그 시간과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셋째~~,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죽으면 내 몸뚱아리 조차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진리라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천년 만년 영원히 살것처럼 살아 갑니다. 그런데 그럴수가 없습니다. 또 죽을 때 다 바리바리 싸갈 것 처럼 살지만 그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당 가고 싶으시죠? 하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머니들 천당 가고 싶으시죠?”하고 물어보면 다 가고 싶다고 번쩍 손을 드십니다. 천당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럼, 지금 갈까요?”하고 물어보면 다 절대 아니라고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십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고 싶지만, 천당간다고 지금 죽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천주교 공원 묘지 앞에는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좀 섬찟한 표현이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루 하루 의미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령 성월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 다가올 내 자신의 죽음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새롭게 성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나와 덧없이 살다가, 덧없이 그냥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 해집니다. 참된 의미를 찾아 열심히 보람있게 그리고 좋은 기억 많이 남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한 행복과 희망을 품고 가야 하는 여행길입니다. 그 여행길이 끝날때, 그래도 돌아보면 참 아름다웠노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한 두가지 아주 중요한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슴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모아,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을 주고 나누는데는 인색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나만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억지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억지입니다.    
  
다시 찾아온 11월 위령 성월, 깊어가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정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조용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성녀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 어디에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우선 가족들 부터, 아이들, 남편이나 부인, 혹은 옆집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온 어떤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해 주세요. 당신의 눈, 당신의 웃음,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인사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세요.”  
  
“그리고, 늘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세요. 당신 부인에게, 당신 남편에게, 당신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상관말고, 모든 이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세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사랑을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이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정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이 깊어가는 가을, 위령 성월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보다 솔직하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그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하느님 나라로 가야하는 시간이 왔을때, 내 인생 헛되지 않았노라고, 허무하지 않았노라고, 그리고 행복했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말입니다.